

“신문·책 읽으며 관찰·생각해야 세상이 보입니다”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의
서민 단국대 교수 '기생충과 인간사회'

20대 투표율 낮은건 활자 멀리해 정치 무관심 탓 SNS 대신 적절 대화 통해 창의적 사고 길러야

‘기생충 박사’로 불리며 기생충학 발전을 이끈 최태호의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기생충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그는 최근 TV 출연과 신문 칼럼으로 인기 가도를 달리는 서민(48) 단국대 의대 교수다.

서 교수는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학기 마지막 강의 ‘기생충과 인간사회’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사회의 단면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의 이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한 일간지에 실고 있는 고정 칼럼과 TV 프로그램 등이 함께 검색된다. 자체 개발한 ‘글쓰기 지옥훈련’을 통해 사회의 온갖 현상을 특유의 거침없는 필담과 입담으로 재해석하면서 그의 칼럼과 방송

에 대한 마니아층도 생겨났다. 그러면서 그는 본분을 잊지 않고 기생충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펴낸 서적 10개 가운데 7개가 기생충과 관련된 책이다. 이 책들은 대학 강의용이나 전문 서적이 아닌 독자에게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소설, 교양서 등이다. 포털사이트에 관련 전문지식과 추리소설 등 문학 시리즈도 연재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이름도 ‘서민의 기생충 같은 이야기’일 정도다.

서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끊임없이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각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라는 것이다. “노동 시간이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최상이면서 독서는 언제 하나”고 묻는 이들이 많지만 이것은 핑계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3시간 사용한다는 통계를 보면 책을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가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기생충과 인간사회’라는 주제로 준비해 온 PPT 자료를 보며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읽을 여유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20~30세대는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 여기며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서 교수는 인터넷의 수많은 콘텐츠(Contents) 중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을 하기 어렵기에 책과 신문을 읽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러 세대 중에서 20대 투표율이 30~40%대로 꼴찌를 기록하는 이유는 활자매체를 멀리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잃어가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서 교수는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려는 태도가 청년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생산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대화’를 꼽았다. 스마트폰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대화를 대신하는 것은 일상 풍경을 카카오톡 내용이 전화통화 5분이면 족할 때가 많다”며 “적절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불통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시간 낭비”라고 꼬집었다. 메신저를 이용할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주변을 관찰하지 않는 습관도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다. 현대인에게는 사회 현상의 단면이라도 관찰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서 교수는 강조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1위’라는 오명은 하루 내내 스마트폰 화면

만 들여다보며 주위를 살피지 않는 습관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스마트폰에 빠진 그 순간, 제주도의 멋진 경치와 사랑하는 가족 등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일부러 스마트폰 대신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 교수는 ‘부러지면 바로 뜨는’ 스마트폰과 같이 수동적이고 쉬운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고생해가며 얻는 지식과 경험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동강대 ‘경찰실습 학점제’ 수료식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사진) 경찰경호학부는 최근 광주북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실습 학점제’ 수료식을 가졌다.

동강대 경찰경호학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북부서의 협조를 받아 형사·경무과 등 경찰서 업무를 비롯해 사건·사고현장 동행, 방법수술, 학교폭력 및 여성 안심귀가길 범죄 예방 등 협력 치안 활동을 수료했다.

동강대는 지난해 ‘경찰 실습’ 강의 시범대학으로 선정돼 경찰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경찰 실습’ 과목을 개설했다. 또 동강대는 지난해 2월 광주북부서와 ‘경·학 협약’을 맺고 매년 1·2학기 두 차례 학점 연계 및 치안 활성화와 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최희준기자 chaeh@kwangju.co.kr

U대회 성공기원·문화전당 개관 축하... 20일 사직대제



대동정신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기원하는 광주 사직대제(社稷大祭)가 열린다.

배달문화선양회(회장 이종일·사진) 주관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광주 사직공원 사직단 광장에서 봉행되는 이번 행사는 갈등과 반목을 넘어 신뢰와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7월 광주에서 거행되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게 된다.

사직대제는 땅을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풍년을 좌

우하는 곡식의 신 직신(稷神)에게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전통 제례의식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1997년까지 거행됐다가 한때 중단됐다가 2008년 다시 복원됐다.

광주 사직대제는 1394년 사직단이 설치된 후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해 사직단이 관군의 훈련장으로 이용되며 중단됐다. 1960년 사직동물원이 들어서며 제단이 철거됐으나 1993년 광주시가 동물원을 이전하고 다시 증축했다.

이종일 회장은 “각계각층이 생각의 차이를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진정한 광주시민의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금호고속·빛고을노인복지재단 협약

금호고속(대표 이덕연)은 지난 16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 지역 노인들의 여가 문화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노인들의 관광, 여행, 문화 체험 등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금호고속은 앞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회원들에게 금호고속이 운영 중인 ‘남도한바퀴’ 및 ‘나주시티투어’ 등 여행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시니어대학 졸업여행, 단체 나들이 등 행사시에 경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 상품을 개발 보급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덕연 금호고속 대표는 “금호고속과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이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대, 기말고사 준비 학생들 격려



광주대학교 김혁중 총장은 기말고사 기간 중인 16~17일 국문숙부총장, 대학본부 5개 처장단, 학생회 관계자들과 도서관 등을 찾아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고 격려했다. <광주대 제공>

여주시 공무원·기관단체 농촌봉사 활동

여주시(시장 주철현)는 최근 공무원과 기관단체 회원 75여 명과 울촌 기장에서 감자재배 농가 일손돕기 지원 봉사활동에 참여해 감자를 수확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나눔누리사랑봉사단과 울촌면사무소, 농협 여주시지부 및 회원조합,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 회원 등이 참여했다.

위성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전영탁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땀방울이 조금이나마 농가에 보탬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농촌 일손돕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기자 chkim@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성남술·지에순씨 장남 건국군 이덕연(금호고속 대표)·안순아씨 장녀 혜선양(=21일(일) 오후 1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컨벤션 센터 2층 그랜드볼룸 02-789-5700.

알림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북부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류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부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승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포스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교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모집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 월~목 문의 062-951-9461.

▲광산군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장애인 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정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

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중만재가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이용상담·노인복지상담 일 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만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락매임 님 (여/87세) 子/子婦: 이정영/최진식, 익영/전옥경 女/婿: 이진숙, 은숙/김경식, 재숙/김진수, 지숙/남진섭 • 발 인: 6월 19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1	301호 故요이순 님 (여/82세) 子/子婦: 정동욱/유미자, 완태/김영순 女/婿: 정선자, 선옥/정광로, 선순/심재경 孫: 정성연, 소이, 민희, 주희 • 발 인: 6월 19일 • 장 지: 화산북면 선영 • 연락처: 227-4382
401호 故곽윤숙 님 (여/84세) 子/子婦: 박철/김현이, 현/이기선, 영/김영순 女/婿: 박미라/김길원, 소라/왕석중 • 발 인: 6월 18일 • 장 지: 영암신복 선영 • 연락처: 227-4383	402호 故김윤주 님 (여/84세) 兄弟: 김종민, 선화, 박봉환 • 발 인: 6월 19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14
102호 故류영년 님 (여/88세) 子/子婦: 김성민, 영민/박미나 女/婿: 김숙자/강남영, 숙희/허민기 • 발 인: 6월 18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6	
孝 金浩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